

학회소식

본 학회 이근영 보험위원장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로 선임

대한병원협회는 2009년도 5월 8일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정관 임원 규정에 따라 7명의 상임이사를 추가 선임하여 지난 7월 9일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 중 본학회 이근영 보험위원장(한림대학교의료원 강남성심병원 병원장)이 보험이사로 선임되었다. 아래는 후생신보 창간 54주년을 기념하며 기획된 특집기사로 '상대가치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본학회 보험위원장인 이근영 교수가 기고하여 게재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회원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기사원문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의 료 칼 럼



'상대가치제도의 발전방향(산부인과)'
대한산부인과학회 보험위원장
이 근 영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하에 의료수가에 대해 산부인과에서는 불만이 극한 상황에 있다. 저 출산의 사회적 요인에 분만료는 현실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모든 대학병원 분만실은 경영적자를 감수해야하고, 부인과의 모든 수술료, 대부분 산부인과 처치 행위 등이 아주 저평가 되어있다. 더구나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를 정책적으로 수가를 상향한다고 발표하고, 산부인과는 슬그머니 빼어버렸다. 한편 최근 산부인과 의사들은 비수축검사(Non Stress Test, NST)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산부인과 수가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정리해 보고저 한다.

산부인과 수가의 문제점

상대가치 전면 개정작업 시 현행 급여항목의 원가 보존율은 73.9%였다는 것이 정부 조사에서 확인 되었다. 상대가치전면개정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모든 급여 행위를 최소한 원가는 보존시킨 후 신 상대가치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당연한 논리이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원칙조차 무시되고 있다.

산부인과 행위는 대부분 기존 수가가 저평가 되어있고, 과의 특성상 대부분 오래전부터 해오는 기본행위가 대부분 의료행위에 비해서 인정되는 행위가 지수가 너무 적고, 신 의료등재는 거의 없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모든 것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업무량의 초기에 계산 시 각 모든 의료행위별 수가를 각각 측정하지 않고, 과간 총 pie를 고정 하는 방법을 채택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미 저평가된 산부인과 총 pie를 시정하지 못하게 되었고, 산부인과의 왜곡된 수가는 빠른 시일 내에 조절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런 왜곡된 보험수가체제로 인해 결국 산부인과 의사 1인당 건강 보험수가는 전과(全科)중 최저를 기록 하고 있다. 오래전 전통 의료행위는 의료의 중심이고, 이는 반드시 적절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

산부인과 수가 개선방향

현행 과간(科間) 상대가치 총점을 고정하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현행 건강보험수가에서 산부인과는 종합적인 평가와 개선이 절실하다. 산부인과에서 현행 200여가지 행위만 인정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평가와 개선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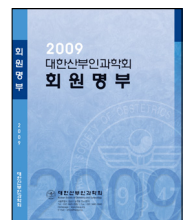
대한산부인과학회 주도로 신의료기술 및 수가개선을 위한 2차례의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제안된 의견중 예를들면 산부인과 진찰료 행위 및 산부인과 특수한 처치와 특수한 치료행위 별도보상 의견, 고위험 임신부 집중관리 및 진통분만 산모 집중관리를 위한 분만장관리료 인정 및 현행 부인과 수술시 골반유착과 타수술을 시행시 보상 받지 못하는 문제점 및 개선안, 부인과(부인암수술)수술료는 대부분 저평가된 문제점 및 개선안 특히 질강처치료의 신설안, 산부인과의 여러 가지 상담료 신설, 산부인과 외래단위의 처치 및 소수술에 행위료를 부가등 수 많은 좋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들은 의견에만 그치지 말고 단기적,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모두 수가에 반영되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보험수가의 개선을 위해서는 학회와 산부인과 개원의협의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어야하며 서로의 긴밀한 관계가 절실할 때이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는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등 전공의 기피과(科) 3D과로 정책적으로 수가를 올려준다고 했다가 최종에는 흉부외과는 100%, 외과는 30%를 정책적으로 올려주기로 발표했다. 빠른 시일 내에 산부인과도 이러한 배려가 시급한 사항이다.

최근에 사회 문제화 되고있는 저 출산대책에 의료수요자에 배려에 대한 정책만 계속되고, 산부인과 공급자들의 왜곡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 여론, 시민단체가 모두 계속 외면하고 있다. 저출산대책에 의료공급자의 대표인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공급자의 중요성을 알려야 할 때이며 우리들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에 동참해야한다. 최근 비수축검사(NST)등으로 최근 산부인과의사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 저수가 어려운 환경 속에도 묵묵히 환자 만을 생각하며 일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 있어야겠다고 정부에서도 배려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있다. 지금부터라도 산부인과 의료수가개선을 위한 중, 단기계획을 잘세우고 개선을 위한 활동을 산부인과 학회 전회원이 힘을 모아 시작하면 산부인과 수가개선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으로 확신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 2009 회원명부 제작 완료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009 회원명부 제작을 완료하였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회원명부를 전달하고자 지난 5월 31일까지 보내 온 회원들의 수정된 연락처 정보와 주소를 수정하여 최종본을 완료하였다. 2009 회원명부는 대한산부인과학회 회원 및 관련기관에 8월 중 배포될 예정이다. 회원명부에 회원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학회로 그 내용이 전달되면 검토를 거쳐 바로잡을 예정이다.



아시아 부인종양학회(ASGO) '제 1차 Council Meeting' 개최

지난 6월 25일~26일 서울, 그랜드 앰버서더호텔에서는 제 1차 아시아 부인종양학회 위원회의(ASGO Council Meeting)가 아시아 회원 10개국 중 9개국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제 1차 아시아 부인종양학회 위원회(ASGO Council Meeting)에서는 학회위원(Council Member) 및 정관(Bylaws)의 확정 및 2009년 11월 21~22일 일본, 도쿄(Toshi Center Hotel, Tokyo)에서 열릴 제1차 아시아 부인종양학회 학술대회(1st Biennial Meeting of ASGO) 개최에 관한 방안이 집중 토론되었다. 아시아 부인종양학회(Asi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ASGO)는 아시아 지역의 부인종양학 발전과 국제연대를 위해 지난 11월 제7차 한일부인종양회 중 결성된 단체로 유럽 부인종양학회(European Society of Gynaecological Oncology; ESGO)와 미국 부인종양학회(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ists; SGO)등 세계적인 지역학회와 어깨를 나란히 할 아시아 대표 부인종양학회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아시아 부인종양학회는 아시아 지역의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학회 강순범 이사장이 초대 회장직을 맡고 있다. 아시아 부인종양학회의 결성으로 그동안 시도하지 못한 아시아 지역 여성의 부인종양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동된 연구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동시에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은 아시아 지역의 젊은 부인종양전문의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아시아 부인암 환자들을 위한 희망의 중심점이 될 것이다.



보험소식

자궁내 풍선카테터 압박지혈술 신의료기술 고시 예고

가. 기술명

- 한글명: 자궁내 풍선카테터 압박지혈술
- 영문명: Intrauterine Balloon Tamponade

나. 사용목적: 산후출혈의 지혈 또는 감소

다. 사용대상: 산후출혈 환자

라. 시술방법: 생략

마.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식도압박지혈튜브삽입술과 유사한 안전성을 가짐

바. 참고사항 : 자궁내 풍선카테터 압박지혈술은 총4편(체계적 문헌고찰 1편, 증례연구 3편)의 문헌적 근거에 의해 평가됨

진찰료, 초재진료 통합논의에 반대 의견 제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불합리한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진찰료 통합방안 검토를 요청한 의사협회에 통합반대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반대의 사유로는 '초진 시에는 History taking, 진찰(내진, 질경검사) 등의 시간이 재진환자에 비해 진료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재진료에 비해 초진료가 더 높은 것이 타당하다. 특히 산부인과는 내진, 질경검사, 질강처치 등에 대한 진료비를 별도 산정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배려 없이 무조건 초진과 재진을 통합하는 것은 산부인과 보험수가의 비현실성을 더욱 증폭시킨다.' 고 제시하였다. 현재 산부인과의 초재진 진찰료의 청구는 1: 1.2 의 비율이다

행사소식

<The 14th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 일시: 2009년 9월 24일(목)
- 장소: 그랜드 힐튼호텔 컨벤션센터 (홍은동)



<제 95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 일시: 2009년 9월 25일(금)~26일(토)
- 장소: 그랜드 힐튼호텔 컨벤션센터 (홍은동)

<The 11th Korea-Japan Joint Conference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 일시: 2009년 9월 25일(금) 오후 2시~5시
- 장소: 그랜드 힐튼호텔 2층 플라밍고룸 (홍은동)

<The 1st Biennial Meeting of Asi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During the 47th JSGO Meeting)

- 일시: 2009년 11월 21일(토)~22일(일)
- 장소: Toshi Center Hotel, Tokyo, Japan
- 홈페이지: www.asiansgo.org

<XIX FIGO World Congress of Gynecology and Obstetrics>

세계최대 규모의 산부인과 학술대회인 FIGO World Congress가 2009년 10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다. 120개국 6,000여명이 참석 예정인 이 행사는 산과와 부인과를 총망라하는 최신지견은 물론 여성건강을 주제로 권위있는 연자들의 다양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일시: 2009년 10월 4일(일)~9일(금)
- 장소: Cape Town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re, Cape Town, South Africa
- 홈페이지: <http://www.figo2009.org.za>